

## 구술자료 상세목록 (구술개요 포함)

사업명	<‘옛’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의 변화>				
사업개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용현동 일대는 염전-공업지대-주거지대로의 변화하는 큰 변화가 진행된 지역임. 이 중 1960-1990년대에 거주 및 근무한 동양제철화학 노동자 및 관리자, 인근 공장의 관계자, 지역주민, 소상공인, 관련 지역사회 인물 등으로부터 인근 지역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증언을 듣고 기록하고자 함.				
구술자명	박병만	성 별	남성	출생연도	1954년
면담자	정지선	소 속	미추홀학산문화원	감독자	
면담장소	학산문화원 동아리실 2	면담지원	조연희		
면담 일시	2025 년 9 월 10 일	회 차	2	시 간	1시간 56분 55초
자료번호	<a href="#">MichuholCA-08-00003298</a>				
구술 개요	<p>일시 및 연구진 소개로 인터뷰가 시작되어 구술자의 개인 신상 및 부모님에 대한 기억, 중, 고등학교 등곳길 풍경과 어린 시절 동네 친구인 박공예 명장 강은수에 대한 이야기, 학익동에 있었던 공장에 대한 기억, 명문 중·고등학교에 가게 된 배경과 가슴에 품었던 꿈 이야기, 첫 회사 화신 레나운에서 했던 일과 OCI에 취직하게 된 배경, OCI의 운동회에 대한 추억, OCI에서 했던 과업과 노동조합 활동을 하게 된 배경, 노동조합원에서 대의원, 상집위원, 위원장이 되기까지의 활동 흐름, 노동조합 위원장이 된 배경과 활동 에피소드,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장으로 활동했던 시절의 노동청 유지 관련 에피소드, OCI 노동조합 위원장의 역할과 자부심, OCI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제도 마련의 어려움, 구술자가 말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차이, 소다회 생산 중단 시기의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구술자가 기억하는 OCI 1대, 2대 회장님과과의 에피소드, 제7대 인천시의원으로 출마하게 된 배경, 재출마를 마다한 이유, 결혼과 가족 이야기, 제7대 인천시의원 활동 당시 동양화학 부지 정리 관련 일화, OCI 은퇴 근로자를 위한 모임에 대한 계획, 은퇴 후 서산에 터를 잡고 살아온 이야기, 인천노동협회 활동에 대한 소회, 학산문화원의 발전에 대한 의견 제시를 끝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음</p>				
주요 색인어	<p>인천, 아버님, 노동조합, 학익동, 용현동, 상집, 동양제철화학, 동양화학, 대의원, 정년, 회사, 학산문화원, 조직, 사무국장, 한국노총, 민주노총, 시의원, 인하대학교, 선입감, 노동협회, 칼사이나, 맞교대, 노조위원장, 인천노동협회, 타워 공정, 화학본부, 금속본부, 대외활동, 노사협상, 파업, 노란봉투법, 은퇴, 서산, 운동회, 생활필수품, 동일레나운, 화신레나운, OCI, 동인천중학교, 동인천고등학교, 강은수, 박공예, 명장</p>				
<b>구술 상세목록 내용</b>				<b>시간</b>	<b>관련 파일(비공개)</b>
1. 일시 및 연구진 소개				00:00:05	
- 일시 및 연구진 소개				~ 00:00:38	
2. 개인 신상 및 부모님에 대한 기억				00:00:39	



- 태어난 곳 - 부모님과 부모님의 고향 그리고 가족(친척)이야기 -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존경심	~ 00:08:38	
3. 중, 고등학교 등굣길 풍경과 어린 시절 동네 친구인 박공예 명장 강은수에 대한 이야기	00:08:39 ~	
- 동인천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 이야기 - 학익동 동네 친구 강은수에 대한 자랑	00:11:57	
4. 학익동에 있었던 공장에 대한 기억	00:11:58 ~	
- 한국강업에 대한 기억 - 농약공장에 대한 기억	00:14:20	
5. 명문 중·고등학교에 가게 된 배경과 가슴에 품었던 꿈 이야기	00:14:21 ~	
- 공부를 제법 잘했던 학창 시절 - 아버지의 부재로 대학 진학보다 생계가 먼저였던 시절	00:20:35	
6. 첫 회사 화신 레나운에서 했던 일과 OCI에 취직하게 된 배경	00:20:36 ~	
- 고교 졸업 후 첫 직장이었던 화신 레나운에서의 2교대 근무 - OCI 취직 배경과 3조 3교대의 편암함 - 첫 업무에 대한 이야기	00:26:42	
7. OCI의 운동회에 대한 추억	00:26:43 ~	
- 88 올림픽 때 회사에서도 진행했던 운동회 에피소드 - 각 계열사를 돌아다니면서 했던 체육대회	00:29:08	
8. OCI에서 했던 과업과 노동조합 활동을 하게 된 배경	00:29:09 ~	
- 적응이 빨랐던 업무 수행 -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00:34:55	
9. 노동조합원에서 대의원, 상집위원, 위원장이 되기까지의 활동 흐름	00:34:45 ~	
- 타워플랜트의 대의원으로 출마 - 상집위원을 거쳐 위원장이 되기까지 에피소드	00:39:12	
10. 노동조합 위원장이 된 배경과 활동 에피소드	00:42:45 ~	
- 노사간 원활한 소통 능력을 내세워 노동조합 위원장이 된 배경 - 100% 만족은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좋은 방향으로 이끌었던 위원장의 역할	00:54:56	
11. 노동조합 위원장 이후, 한국 노총 인천 지역 화학 본부장, 지역 본부장직을 겸직했던 대외 활동 에피소드	00:54:57 ~	
- 한국노총 인천지역 본부장직 선거에서 있었던 일화	01:02:51	
12.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장으로 활동했던 시절의 노동청 유지 관	01:02:51	



런 에피소드	~	
- 한국노총 인천지역 본부장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노동청 이주 반대 활동	01:02:51	
13. OCI 노동조합 위원장의 역할과 자부심	01:02:59	
- 국제 경제 위기로 인해 나라와 회사가 어려웠을 때 솔선수범했던 노조위원장의 책임과 역할	~ 01:07:19	
14. OCI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제도 마련의 어려움	01:07:20	
- 편의를 위한 복지엔 소홀했었던 점	~ 01:09:52	
15. 구슬자가 말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차이, 소다회 생산 중단 시기의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01:09:53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차이점에 대한 생각	~ 01:17:17	
16. 구슬자가 기억하는 OCI 1대, 2대 회장님과의 에피소드	01:17:18	
- 이회림 회장님의 추진력에 대한 존경심 -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이수영 회장님에 대한 그리움 - OCI가 세금 폭탄으로 휘청거렸을 때의 소회	~ 01:24:57	
17. 제7대 인천시의원으로 출마하게 된 배경, 재출마를 마다한 이유	01:24:58	
- 정년을 앞둔 시점에서 시의원으로 활동 영역을 넓힘 - 시의원이 해야 하는 업무가 공정하지 못한 것도 많다는 것에 대한 회의감으로 재 출마 포기	~ 01:32:00	
18. 결혼과 가족 이야기	01:32:01	
- 손녀딸 이야기 - 첫눈에 반한 사모님에 대한 기억	~ 01:34:46	
19. 제7대 인천시의원 활동 당시 동양화학 부지 정리 관련 일화	01:34:47	
- 시의원으로 활동 당시 동양화학 부지정리에 대해 관여하기 어려웠던 점 - DCRE의 개발로 인한 학익동의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 01:38:34	
20. OCI 은퇴 근로자를 위한 모임에 대한 계획	01:38:35	
- 임원들로만 이루어진 모임 외에 노동 근로자들로 이루어진 모임을 추진하려는 계획	~ 01:41:23	
21. 은퇴 후 서산에 터를 잡고 살아온 이야기, 인천노동협회 활동에 대한 소회	01:41:24	
- 부모님의 고향인 서산에 터를 잡은 이야기 - 시의원 재임 기간 후 인천노동협회를 맡아서 운영하게 된 사연	~ 01:47:53	



22. 평생 노조 활동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이유	01:47:54	
- 사람들과의 관계, 소통에 대한 관심이 노조 활동으로 이어짐	~ 01:55:25	
23. 학산문화원의 발전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인터뷰 마무리	01:47:54	
- 학산문화원의 발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겠다는 다짐	~ 01:56:56	
<b>공개여부</b>	<input type="checkbox"/> 전체 공개 <input type="checkbox"/> 전체 비공개 <input type="checkbox"/> 부분 공개	
<b>활용동의</b>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 안 함 <input type="checkbox"/> 조건부 동의	
<b>특이사항</b>		